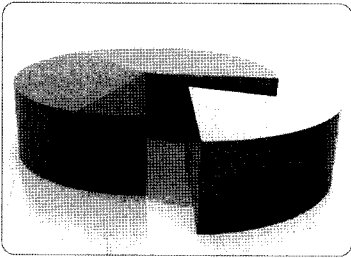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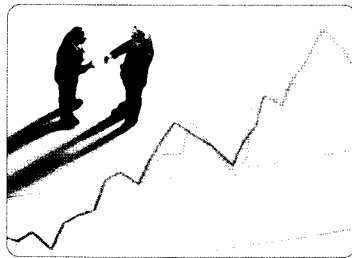


environmen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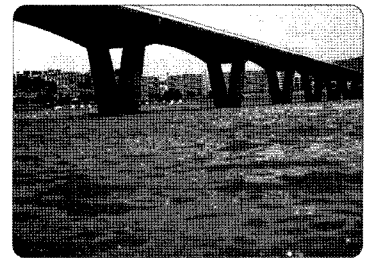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는?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450여개 관리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하고 지난 10월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 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606백만 CO₂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1.44%가 감축된 598백만 CO₂톤이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시행 첫해인 내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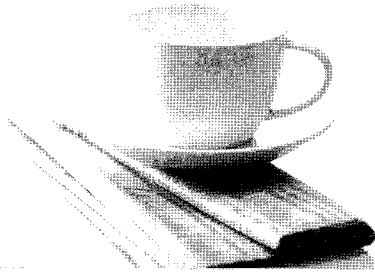
‘녹색인증’ 받고
‘코스닥 상장’까지 쬐~!

최근 환경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하여 메리트 증권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것은 물론,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통해 메리트 증권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해당 기업은 소요 비용을 우대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만을 부여하던 기존의 인증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번 상장지원 서비스와 같이 인증 취득 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후지원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이 신속하게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특례제도를 마련, 이익발생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녹색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이익 평가 등의 요건을 상장 심사에서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녹색인증기업의 코스닥 상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년 후엔
4대강에서 댁 한번 감아볼까?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4대강 지역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과 친수 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4대강 유역의 하수처리장에 화학적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조류 성장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182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9월말까지 151개소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중이거나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총인시설에 이어 하수도서비스도 크게 개선된다. 환경부는 4대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농어촌마을하수도 등 832개소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시행중인 총인 및 하수도 사업의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의 대부분 수질이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라며,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5년까지 하수도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92%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전국 하천의 85% 이상이 “좋은 물”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에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도?



흔히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수도물의 수질기준에 추가된다는 소식이다. '수돗물에 왜 포름알데히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미량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먹는 생물, 약수터나 샘터 등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은 완화된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이 기준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수돗물의 경우 현행 58개 항목인 수질기준이 향후 59개로 확대되며, 정수장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지하수와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항목은 기존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드는데, 특히 '맛'은 국제적으로도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아닐뿐더러, 주관적인 면이 강해 개정되는 수질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5가지 기준 :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 맛, 증발잔류물) 환경부는 특히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되고, 다양한 샘물의 개발로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 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등산도 '스마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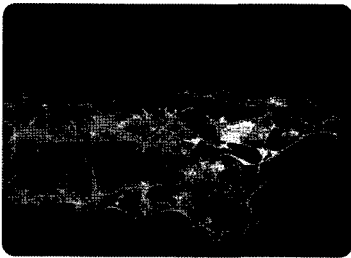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똑똑한' 등산이 가능해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간 4천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행정보 서비스'를 11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행정보 서비스는 공원소개, 코스찾기, 조난신고, 날씨정보, 주변안내 등 산행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데,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 등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신고 메뉴를 누르면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이 구조대에 즉시 전달되어 빠른 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이 잘 되지 않은 산악지역을 등반할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지도를 다운로드해 가면 언제든 코스찾기가 가능하며, 탐방정보, 기상정보, 이동경로 저장도 가능하다. 11월부터 지리산, 설악산, 계룡산, 북한산 등 9개 국립공원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내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구축된 산행정보 DB를 민간업체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개방형 API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렵장 50% 확대... 밀렵을 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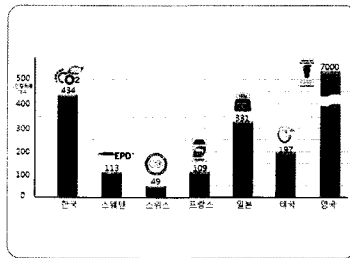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사냥이 가능한 '수렵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30개의 수렵장을 개설, 지난해보다 수렵면적이 50% 늘어났다고 밝혔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한데 따라 환경부는 수렵장을 지난해보다 8개 늘려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렵 가능한 기간은 매년 11월 ~ 이듬해 2월까지나, 지난해는 규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서식개체가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는 수렵장의 수와 면적을 늘리게 되었다. 한편, 전기울타리 등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야생동물 접근차단장치'에 대한 지원요구가 급증하면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을 금년도 보다 5억원을 늘려 총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관할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밀렵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사 끄짜마! 해병대 울고 갈 감시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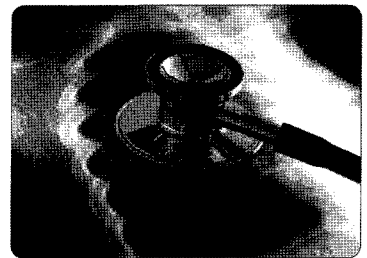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가 중국 등지에서 날아오는 황사 등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기지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백령도에는 2008년부터 '백령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특히 '황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응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전국 권역별로 총 7개의 집중 측정소가 추가로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5개의 측정소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최초로 구축된 백령도 측정소는 중국과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관측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지상 2층 건물의 측정소에는 무려 40억원, 50여종이 넘는 세계적 규모의 측정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백령도 측정소에서는 황사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 유해 중금속 성분 등을 24시간 분석하고 있으며, NASA의 DRAGON 프로젝트, 독일 IfT와의 LIDAR 공동연구 등 5개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백령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광학 및 기후 변화 연구의 세계적 중심지로 끌어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라벨링 제품수 세계에 '두번째'



요즘 마트에서 시장을 볼 때 눈에 띄는 제품들이 있는데 바로 '탄소라벨링'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탄소라벨링은 생활밀착형 상품과 건축자재, 운송 서비스, 에너지 사용제품 등에 표시되고 있으며, 현재 430여개의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라벨링을 사용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주요 제품군 중 세제, 식음료, 미용 제품과 같은 일반제품이 전체의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연말까지 총 500여개 제품에 대한 인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탄소라벨링을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12개국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로,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올해 11월부터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2단계 저탄소 상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녹색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성적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될 예정으로, 그린카드로 탄소라벨링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포인트가 지급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녹색 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소비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찾기 나서



환경부에서는 석면질환자와 석면피해 특별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면피해 구제제도로 270여명이 피해인정을 받아 치료비나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원받았는데, 생존질환자와 달리 유가족들은 사망원인이나 제도시행을 잘 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중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인 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구제법에 의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으며,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전국 13만 기업의 대표들이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세계 최대시장 미국과의 FTA는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비준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진 만큼 우리도 지체없이 국회통과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미국 수출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1.2%의 수출기업이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됐거나 비준시 반영예정'이란 응답이 84.5%에 달해 FTA가 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표해 '남북한 경기진작과 지속성장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적인 성장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상공인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기업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스리랑카 무역투자포럼



한국과 스리랑카 기업 60여명이 모여 교역 확대를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월 1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니오말 페레라 스리랑카 외교부 차관을 초청해 한-스리랑카 무역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외교부 차관 외에도 조엘 셀비나야감 호벨그룹 회장 등 양국의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니오말 페레라 스리랑카 외교부 차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스리랑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세호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스리랑카의 내전으로 위축되었던 양국간의 경제협력력을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에서는 스리랑카 투자청과 수출발전청에서 스리랑카의 무역투자 환경과 2012년 스리랑카 엑스포에 대해 강연을 했다. 포럼 뒤 이어진 비즈니스 네트워킹에는 (주)STX, (주)에스아이씨, 씨엠프로전인과 같은 한국 기업이 참석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6)로 연락하면 된다.

*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 www.env-relief.or.kr

